

2019년 4월 26일, 서귀포시 효돈동(하효동) 하효동경로당, 문순덕 · 김은정 조사.  
권기홍(남, 1940년생, 서귀포시 하효동)

- 서귀포시 하효동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80년째 살고 있다.

- 줄거리: 소 장사꾼 두 명이 길을 가다가 그슨새(귀신)을 보았다. 그러나 같이 가던 소가 꿈 적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자 소장사꾼들은 소꼬리만 잡고 있었다. 소는 귀신을 보면 놀라지 않아 소만 잡고 있으면 귀신을 봐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.

[제보자] 이건 붓물 하효 사이에 나 이거 들은 말인디 붓물 하효 사이에 물 터진 울이라고 있어. 거기가 헛게 헛 거야. 헛게 잘 난다. 헛거 잘 난다 이거지.

[조사자] 무슨 일이 있어난 거 아니꽈?

[제보자] 무슨 일이 있어난지 몰라도 하여튼.

[조사자] 헛게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?

[제보자]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지 본 적도 그냥 들은 말인디 그슨새란 거는 시커멓힌 거 탁 막아그넹 그 알로 지나가지 못헌덴 하고. 그디서 나 들은 말은 쉼장시 둘이가 하나는 우리 동네 하르방인디. 하나는 동네 하르방인디 쉼장시 둘이가 쉼 바꿈인가 삼인가 헤가지고 둘이서 술 먹당 보난 밤 막 텔 거 아니여.

하르방이 쉼 이끌고 한 사람 뒤에서 몰고 한 사람은 이끌고 한 사람은 뒤에서 온단 말이며. 온 디 쉼가 이놈이 쉼가 움직이지질 안에여. 암만 때려도 안 가고 말이며. 뽀도 안허고 말이며. 정신 차령 보니까 골목으로 가가지고 아까 말한 쉼소 막에 그디 들어가 부난 쉼가 안 들어가는 거라. 그런 말이 있어. 쉼은 귀신을 안 부리고 물은 귀신을 놀랜다 해.

물은 귀신 보든 스몹 와당탕 하고 쉼은 절대 안 놀랜다는 거라. 그래서 옛날에 산에 가서 질 일르든 소꼴랑지만 딱 잡으든 집에 온다는 거라.

[조사자] 소꼴랑지만 잡으든 잘 좇아와마썸?

[제보자] 응, 자기 집 잘 좇아와.

- 핵심어: 쉼(소), 하르방(할아버지), 꼴랑지(꼬리), 그슨새(귀신), 헛게(귀신), 물(말), 쉼장시(소장수), 하효